

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최대)

법원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 판단
지지자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한국당 "사법사상 치욕의 날" 비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1심 선고 때까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6개월 늘어났다. 그전에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석방된다.

새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석방 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권한이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다.

새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최근 정치권·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구속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기소 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다면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조문들을 종합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사실에 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85)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반란·내란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소법에 규정된 1심 구속기간(6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61)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의 일부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기소돼 심리했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모든 범죄사실에 다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구속영장 반대집회를 연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항의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에 피켓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吊鐘)이 울렸다. 사법사에서 치욕의 날이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 범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 논평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김선미 기자 offramp@joongang.co.kr

▶ 관계기사 3면



김이수 대법관 논란, 헌재 국감 파행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관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법관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 관계기사 8면 강정현 기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날, 권오현 부회장 용퇴

(삼성전자)

"경영진, 비상한 각오로 쇄신을"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 큰 과제
적임자 찾기 위해 후배에 길 터줘

권오현(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다. 이날 오전 권 부회장은 보도자료 통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만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와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겸직하고 있는 부품부문 총괄직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직접 밝힌 사퇴의 배경은



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바로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을 할 때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크게 술렁였다. 권 부회장이 보여 준 경영 성과를 고려하면 '굳이 지금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권 부회장이 반도체사업부를 이끌기 시작

‘경영 쇄신의 필요성’이다. 권 부회장은 "사퇴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이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급격히

한 2008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은 빠르게 위상을 강화해 왔다. 지난 2분기엔 반도체 업계의 제왕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로 우뚝 섰다. 회사 상황이 어수선한 것도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권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의 수장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의 재계 총수 회동,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 호프 미팅에도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임미진·박태희·손해용 기자

mijin@joongang.co.kr

▶ 5면 '용퇴'로 계속, 관계기사 5면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사드·경제 분리 신호탄 되나

▶ 6면

오늘은 **Saturday** ▶ 16면

외교부 자주파·동맹파 갈등

‘훈비백산’ 말 그림 때문일까

내일은 **중일SUNDAY**

명절 끝 이혼 왜

날씨 ▶ 2면, 구독·배달 1588-3600

이번주 일요일,
이마트 전점
정상영업

*행사기간 : ~10/18(수)까지

달달한 가을의 맛!

홍시(6~9입/박스, 국내산)

3,980원 *2팩 구매시 5,980원



*이마트에서만

[화제의 분양] 신성장사업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일산 중심 상업지구 상가, 오피스텔이 뜬다!

일산 호수공원, 라페스타, 홈플러스 앞 코너 메디컬+근린상가!

정발산역 도보 5분 초역세권 / 일 약 16만 명 유동인구, 직장인 약 3만 명 상주 / 삼거리 코너, 일산 1기 신도시 마지막 중심 상업지 / 100% 임대 대기 중

〈편의점 독점〉

면적 : 112.97㎡
전용 면적 : 51.04㎡
보증금 : 1억 6천만원
월세 : 465만원
실투자 : 2억 3,831만원
예상 수익률(년) : 11.74%

〈커피숍 독점〉

면적 : 83.38㎡
전용 면적 : 37.67㎡
보증금 : 1억 2천만원
월세 : 340만원
실투자 : 1억 7,319만원
예상 수익률(년) : 11.74%

〈치과〉

면적 : 64.70㎡
전용 면적 : 29.23㎡
보증금 : 4천만원
월세 : 136만원
실투자 : 5,804만원
예상 수익률(년) : 16.32%

〈내과〉

면적 : 193.03㎡
전용 면적 : 87.21㎡
보증금 : 1억 1천만원
월세 : 392만원
실투자 : 1억 7,062만원
예상 수익률(년) : 16.08%

노후준비 끝! 평생 안정된 월세 수익과 시세차익 직접 확인하세요! / 문의 : 1877-8949

*위 임대업종 및 보증금은 상가주와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계좌] 우리은행 1005-603-306935 [예금주] 국제자산신탁(주) [신청금] 1,000만원 *미계약 시 전액 환불됩니다.